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게티이미지뱅크

탄소중립 위해
숲 베어낸다고?
‘늙은’ 나무는 죄 없다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오래된 숲을 베어 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산림청의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산림 탄소흡수량을 늘리려고
30년 이상 된 기존 산림을
대대적으로 베어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산림의 생태적 기능은 안 보고 30년 넘은
숲을 쓰레기 취급한다”,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파괴청”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진다...”

-한겨레신문 2021년 4월 28일

2008년 유명과학저널 <네이처>

“숲은 800살이 될 때까지도 이산화탄소 순흡수원으로 기능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014년에는 대부분의 나무는 노령화돼도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이 둔화되지 않는다는 16개국 과학자들의 공동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다.

6개 대륙의 열대·아열대·온대 기후대에서 자라는 400여종의 나무를 장기간 조사해 얻은 결론이다.” (한겨레신문 2021년 4월 28일)

산림과학원 자료

—

“수령 70년까지 조사한
‘표준 탄소흡수량’ 자료에는
한국 숲의 대표 활엽수인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알트루사에서는

—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자고 한다.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숲은 고요하지 않다"는 책에서는

—

코로나 19로

사람들의 인적이 적어진 도로에

*야생동물들이 나타난 사건*을 다룬다.

야생동물들은 그동안 인간을 살피고 있었다.

인간은 어떠했는가?



영월 청령포 소나무 숲. 연합뉴스

숲을 인간중심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인공림을 새로운 인공림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인공림이

자연림이 되게 하자.

숲을

탄소흡수원으로만 여기는 일은
끔찍하다.

공감은

—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한다.

제작 : 알트루사 핵없는세상

참고자료:

[뉴스AS] 탄소중립 위해 숲 베어낸다고? ‘늙은’ 나무는 죄 없다
한겨레신문 4/28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2950.html#csidxb6d2ef21d7e2a879345b7fc4669812b>